

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한 코칭행동과 라이프스킬 및 삶의 전이에 대한 구조모형검증

임태희(용인대학교 교수) · 배준수(용인대학교 박사과정)* · 서소영(용인대학교 석사)
· 양윤경(강남대학교 박사과정)

요 약

이 연구는 스포츠 환경에서 선수들이 지각한 코칭행동과 라이프스킬 그리고 라이프스킬 전이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실업팀에 소속되어 있는 태권도 선수 276명(남자=150, 여자=126)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상관관계, 그리고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에 사용되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칭행동은 라이프스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라이프스킬은 라이프스킬 전이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코칭행동은 라이프스킬 전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코칭행동은 라이프스킬을 매개하여 라이프스킬 전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지도자의 코칭행동은 선수들의 라이프스킬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 삶으로 연결되는 라이프스킬 전이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선수들이 라이프스킬 발달과 전이를 촉진하고 이 두 기술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코칭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스포츠 지도자, 역량, 라이프스킬 코칭전략, 매개효과

* junsbae57@naver.com

I. 서론

최근 우리나라 스포츠계는 선수 폭력, 미투(me too) 사건 등을 계기로 인권, 학습권, 이중경력(dual career), 은퇴 후 진로, 그리고 삶의 질 향상 등이 관심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주제들은 대부분 스포츠 지도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지도자는 선수 개개인의 인지·정서·사회성·진로, 의사결정 등 다양한 요소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선수가 지도자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닮아 간다는 사실은 Bandura(1991)의 모델링(modeling) 이론에 잘 나타난다. 다시 말해, 지도자가 보여주는 코칭행동은 선수들의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스포츠에서 코칭행동은 선수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코치가 선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Barrow, 1977). 나아가 코칭행동은 지도자가 팀 구성원들에게 행사하는 언어적·비언어적 요소들을 포괄하며 운동에 대한 전문성, 지식, 체력과 기술, 그리고 태도 및 역량도 포함한다(Chelladurai & Saleh, 1978). 비록 코칭행동은 선수들의 운동수행(performance)과 가장 두드러진 관련성을 지니지만 경기와 상관없는 발달 자산(developmental assets)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Danish, 2002). 가령 임태희, 양윤경, 이창민과 배준수(2019)는 태권도 학생운동선수가 지각한 긍정적 코칭행동은 도덕적 이탈과 같은 인지왜곡(cognitive distortion) 현상을 최소화하여 반사회행동을 예방하고 친사회행동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박중길과 김기형(2013)은 운동선수가 지각한 코칭행동과 정서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자율성 지지 행동이 선수들의 자율적 행동조절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는 긍정정서를 촉진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코칭행동은 스포츠에서 경기력과 관련된 요소들 이외에도 선수들의 삶과 관련된 영역까지 포함한다. 최근에는 코칭행동이 선수들의 행복한 삶과 직접으로 관련된 '라이프스킬(life skills)' 발달의 선행변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 연구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이프스킬이란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효과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임태희, 장창용, 2017). 이는 의사결정, 문제해결, 창조적 사고,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비판적 사고, 대인관계, 자기인식, 감정억제, 공감, 스트레스 대처 기술 등으로 구성된다(WHO, 1999). 라이프스킬은 개인이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스포츠 상황에서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 스스로 습득할 수 있다(Jones & Lavallee, 2009). 그러나 선수들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지도자가 의도적으로 개입해 적절한 중재 전략을 사용할 때 그 효과는 더욱 향상된다(Camiré, Trudel, & Forneris, 2012). 더해서 선행연구에

서는 라이프스킬 발달과 관련된 철학을 가진 지도자가 라이프스킬을 지도하는 것이 선수발달과 경기력 향상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Camiré, 2014; Gould & Carson, 2008; Fraser-Thomas, Côté, & Deakin, 2005).

그러나 스포츠를 통해 습득한 라이프스킬이 스포츠가 아닌 다른 환경 즉 일상으로 전이되지 않으면 진정한 라이프스킬이라고 보기 어렵다(Gould, Chung, Smith, & White, 2006). 이를 ‘라이프스킬 전이(life skills transfer)’라고 한다. 즉 한 가지 환경 또는 목적을 위해 습득한 지식, 능력, 기술 등을 여러 다른 환경에서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Gagne, Yekovich, & Yekovich, 1993). 예를 들어 태권도 환경에서 선수들은 연습게임 전이나 시합 전에 부족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신만의 독특한 전략(예: 혼잣말, 심상 등)을 학습한다. 만약 이러한 인지·심리적 기술들이 학교 상황으로 전이된다면 팀 프로젝트나 발표 상황에서도 선수들은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사한 기술과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패배와 실패를 대하는 태도,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노력과 인내, 팀 내에서의 역할 수행과 팀워크 등 스포츠의 모든 요소는 삶의 여러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들이다(Gould & Carson, 2008; Pierce, Gould, & Camiré, 2017). 이에 몇몇 학자들은 코칭행동-라이프스킬-라이프스킬 전이로 이어지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적 틀을 구축하거나 라이프스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Pierce et al. (2017)은 라이프스킬 전이 모델에 선수 개인 내적인 요소를 비롯해 스포츠 환경(예: 프로그램·지도자 등)을 포함하고 전이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과 전이의 결과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선수들의 ‘라이프스킬 발달’이 발생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지도자들이 라이프스킬을 가르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한 프로그램과 노력이다. 이 밖에도 라이프스킬 지도 모델을 제시한 Gould와 Carson(2008)에 의하면 스포츠 라이프스킬은 선수의 내적 자산, 성격, 기술 개발을 통해 삶과 사회로 전이된다. Kendellen과 Camiré(2019)는 라이프스킬 습득 및 전이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선수들에게 DC(Developing Champions; Hardcastle et al., 2015)을 적용한 결과 스포츠 이외의 상황에서 시간관리 및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성과를 얻었다. 국내에서는 대학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PEAK 프로그램(Performance · Enhancement · Achievement · Knowledge Program)을 적용하여 라이프스킬 습득 및 학습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임태희(2019)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국내·외 연구자들은 라이프스킬의 습득뿐만 아니라 삶으로의 전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도자의 코칭행동이 선수의 라이프스킬 발달 그리고 스포츠 외적인 환경으로의 라이프

스킬 전이로 이어진다는 이론적 구조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분명 코칭행동은 선수의 경기력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정서적인 차원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라이프스킬은 시범, 모델링, 그리고 연습을 통해 가르칠 수 있다는 점(Danish & Hale, 1981)에서 지도자의 코칭행동에 따라 라이프스킬과 전이의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라이프스킬 개념은 최근에서야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앞서 설명한 세 가지 변인의 직접적인 관계성을 규명한 객관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선행연구 대부분은 이론적 틀을 세우거나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태권도 라이프스킬 교육 모델을 제시한 배준수, 임태희, 그리고 장창용(2019)은 국내 라이프스킬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척도를 활용한 통계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 국내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해져 가고 있는 시기에 스포츠가 지닌 긍정적 기능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의 내용은 태권도 지도자와 선수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태권도는 국내 개인종목 스포츠 중 가장 많은 선수가 등록돼 있다(대한체육회, 2019). 그중 대학 및 실업선수들은 다른 연령대 선수들보다 라이프스킬과 전이의 활용이 강조된다. 그 이유는 이들이 부상, 진로, 은퇴 등으로 다른 삶을 위한 역량과 라이프스킬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금까지 전개한 태권도 지도자의 코칭행동과 라이프스킬 그리고 라이프스킬 전이에 대한 구조모형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코칭행동은 스포츠 라이프스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h1). <가설 2> 스포츠 라이프스킬은 라이프스킬 전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h2). <가설 3> 코칭행동은 라이프스킬 전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h3). <가설 4> 코칭행동은 스포츠 라이프스킬을 매개하여 라이프스킬 전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h4).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대한태권도협회에 등록되어있는 대학 또는 실업팀 소속 태권도 선수(겨루기) 290명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이 중에서 자료가 불성실하거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

되는 14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는 276명(남자=150, 여자=126)의 자료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84세($SD=2.51$)였고 과반수의 선수가 8년 이상(60.5%)의 선수 경력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36명(13.0%)의 선수들은 국가대표 경력을, 46명(16.7%)의 선수들은 국제대회 입상 경력을 지니고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아래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150
	여자	126
소속	대학선수	178
	실업선수	98
입상 경력	국가대표	36
	국제대회 입상	46
	전국대회 입상	179
	입상경력 없음	15
운동 경력	4년 미만	4
	4~6년 미만	25
	6~8년 미만	80
	8년 이상	167
합계	276	100

2. 측정도구

1) 코칭행동

코칭행동은 Chelladurai와 Saleh(1980)가 개발하고 국내에서 김병현(1992)이 번안한 것을 한태환, 김기환 및 심상신(2012)이 사용한 스포츠리더십척도(leadership scale for sport, 이하 LSS)를 사용하였다. 국내 체육학 분야에서는 코칭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LSS나 LBDQ(Leader Behavior Descriptive Questionnaire)와 같은 리더십 측정도구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송용관, 김동환, 2006). LSS는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을 크게 5가지(훈련 및 지시 행동, 권위

적 행동, 긍정적 보상 행동, 민주적 행동, 사회적 지지 행동)로 구분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스포츠심리학 교수 1명, 스포츠심리학 박사 2명, 태권도 전문가 1명)의 내용 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한 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로 응답한다.

2) 라이프스킬

라이프스킬은 Cronin과 Allen(2017)이 개발한 스포츠 라이프스킬 척도(life skills scale for sport, LSSS)를 국내 선수를 대상으로 타당화 한 임태희 등(2019)의 척도 KLSSS(Korean life skills scale for sport)를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스포츠 환경 내에서 참여자들이 학습 및 발달한 라이프스킬을 측정한다. KLSSS는 목표설정, 팀워크, 대인관계 및 사회기술, 시간관리, 리더십 5개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문가 집단의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문항의 응답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3) 라이프스킬 전이

라이프스킬 전이는 Weiss et al. (2013)이 개발한 LSTS(life skills transfer survey)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태희 등(2018)이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판 라이프스킬 전이 검사지(Korean life skills transfer survey, KLSTS)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스포츠 환경에서 학습한 라이프스킬이 스포츠가 아닌 환경으로 전이되어 사용되는지를 측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원 척도는 도움주고받기, 건강관리하기, 다름인정하기, 만나기와 인사하기, 목표설정하기, 친구 갈등해결하기, 형제갈등해결하기, 감정조절하기로 총 8요인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협의를 통해 태권도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감정조절하기, 친구갈등 해결하기, 도움주고받기, 만나기와 인사하기 4개 요인을 추출하여 수정·보완 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응답한다.

3)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타당도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이하 CFA)을 이용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CFA의 경우 모형의 적

합도는 $Q(\chi^2/df)$ 값, CFI, TLI, RMSEA, SRMR 값을 이용하였다. 이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적합도 지수들이다(Kline, 2015). Q값은 3 이하, CFI와 TLI는 .9 이상, RMSEA와 SRMR은 .08 이하일 때 ‘아주 좋은 적합도’로 판단한다(홍세희, 2017; Kline, 2015). 또한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 회귀계수(β)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CFA에서 표준화 회귀계수는 보편적으로 .5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래 제시된 <표 2>에는 세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들이 제시되어 있다. 코칭행동과 라이프스킬 전이의 모형은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를 충분히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스킬의 경우에는 CFI와 SRMR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이 기준치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Q=3.019$, $TLI=.870$, $RMSEA=.086$ 으로 기준에 매우 근사한 값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는 ‘수용할 만한 적합도’로 판단(Kline, 2015)하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다.

표 2. CFA의 모형적합도

Model	χ^2	df	$\chi^2/df(Q)$	CFI	TLI	RMSEA	SRMR
기준*			3 이하	.9 이상	.9 이상	.08 이하	.08 이하
코칭행동	163.304 ($p < .000$)	80	2.041	.956	.942	.062 (90% CI = .048, .075)	.051
스포츠 라이프스킬	241.481 ($p < .000$)	80	3.019	.901	.870	.086 (90% CI = .073, .098)	.064
라이프스킬 전이	124.012 ($p < .000$)	48	2.584	.953	.936	.076 (90% CI = .060, .092)	.058

* 제시된 기준은 ‘아주 좋은 적합도’에 대한 값임(Kline, 2015).

또한 <표 3>에 제시된 표준화 회귀계수(β) 값을 보면, 라이프스킬 전이의 감정조절 1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의 값이 .5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감정조절 1번 문항의 표준화 회귀계수도 .495로 .5에 근사하고 모형적합도와 신뢰도의 기준을 충족하여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끝으로, 전체 하위요인들의 신뢰도는 최소 .631에서 최대 .894의 범위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이었다. 결과적으로 코칭행동, 스포츠 라이프스킬, 라이프스킬 전이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적합하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factor		문항	B	β	S.E.	t	α
나의 지도자(코치, 감독)는...							
코칭 행동	훈련지시2	모든 선수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설명한다.	1.000	.826	-	-	.850
	훈련지시1	훈련 시 선수들의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970	.848	.065	14.837***	
	훈련지시3	각 선수의 강점과 약점을 지적해준다.	.903	.754	.068	13,211***	
	권위2	어떤 점에 대해서도 양보하지 않는다.	1.000	.917	-	-	.797
	권위3	선수들과 거리를 둔다.	.788	.703	.074	10.713***	
	권위1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749	.663	.073	10,235***	
	긍정보상3	선수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 제때에 인정해 준다.	1.000	.767	-	-	.750
	긍정보상2	선수들이 훈련이나 시험에서 잘 하면 보상을 준다.	.917	.588	.102	8.997***	
	긍정보상1	선수가 잘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1.160	.785	.099	11,691***	
	민주2	주요한 코칭사항에 대해 선수들의 의견을 묻는다.	1.000	.742	-	-	.812
	민주3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선수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925	.738	.081	11,428***	
	민주1	연습방법에 대해 선수들이 건의할 수 있도록 한다.	.973	.811	.078	12,409***	
	사회지지2	선수들의 개인 복지를 위해 노력한다.	1.000	.813	-	-	.783
	사회지지1	선수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준다.	.884	.761	.070	12,622***	
	사회지지3	선수들에게 친근감을 자주 표현한다.	.782	.673	.071	11,054***	
나는...							
스포츠	목표설정2	도전적인 목표를 세운다.	1.000	.804	-	-	.828
	목표설정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과정을 확인한다.	1.117	.833	.085	13,095***	
	목표설정1	성장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운다.	.957	.723	.081	11,795***	
	팀워크3	우리 팀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	1.000	.718	-	-	
	팀워크2	우리 편(팀)을 위해 나의 경기방식을 바꿀 수 있다.	.911	.584	.128	7,095***	
	팀워크1	우리 편(팀)을 위해 다른 팀과도 교류할 수 있다.	.667	.594	.093	7,159***	
라이프 스킬	대인/사회3	의사전달을 잘 하는 편이다.	1.000	.669	-	-	.631
	대인/사회2	다양한 SNS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한다.	.849	.532	.120	7,066***	
	대인/사회1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1.031	.617	.130	7,914***	
	시간관리3	시간 관리를 잘한다.	1.000	.883	-	-	
	시간관리2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체크하고 평가한다.	1.007	.833	.067	15,095***	
	시간관리1	시간을 조절해서 쓰는 편이다.	.741	.729	.056	13,170***	
라이프 스킬 전이	리더2	팀(그룹)원이 열심히 참여하도록 이끄는 편이다.	1.000	.811	-	-	.785
	리더3	팀원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도록 돕는다.	.945	.746	.079	11,953***	
	리더1	팀(팀원)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편이다.	.928	.688	.084	11,038***	
	친구갈등2	친구와 의견이 다르면 이를 풀기 위해 노력한다.	1.000	.736	-	-	.776
	친구갈등3	친구와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한다.	1.136	.757	.102	11,170***	
	친구갈등1	친구와 갈등을 겪을 때, 서로에게 유익한 해결책을 찾는다.	1.063	.713	.100	10,618***	
	감정조절2	좋지 않은 점수를 받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	1.000	.814	-	-	.743
	감정조절3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1.063	.844	.090	11,861***	
	감정조절1	학교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673	.495	.087	7,741***	
	도움2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1.000	.849	-	-	.829
	도움3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간다.	.941	.764	.072	13,016***	
	도움1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신뢰할만한 사람을 찾아간다.	.959	.763	.074	13,001***	
만남인사2	처음 만난 사람과도 편하게 인사한다.	1.000	.947	-	-	.894	
만남인사1	처음 만난 사람과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눈다.	.895	.877	.044	20,399***		
만남인사3	새로운 친구에게 나를 먼저 소개한다.	.788	.765	.048	16,260***		

*** $p < .001$

3. 분석방법

이 연구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패키지인 SPSS 23버전과 AMOS 23버전을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불성실하거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 자료를 제외하였다. 자료에 대한 불성실 또는 오류 판단은 연구진이 논의하여 여러 번의 검토 끝에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14부의 자료가 제외되었고 최종 276개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둘째, 자료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고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는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사용하였다.

셋째, 세 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r 계수를 이용하였다. 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상관으로 해석한다.

넷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Kline(2015)의 주장에 따라, $Q(\chi^2/df)$, CFI, TLI, RMSEA, 그리고 SRMR을 사용하였다. 이후 경로계수를 알아보았고, 매개(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한다.

Ⅲ. 결 과

1. 기술통계

수집된 자료의 정규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는 평균(me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왜도(skewness), 그리고 첨도(kurtosis)를 살펴보았다. 왜도와 첨도의 경우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기준치인 왜도 절댓값 3 이하, 첨도 절댓값 8 이하를 기준으로 삼았다(Kline, 2015). 기술통계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의 범위는 2.07~4.13으로 나타났고 표준편차의 범위는 .62~1.00으로 확인되었다. 왜도의 범위는 -.67~.90이

있고 첨도의 범위는 -.62~1.10으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의 기준치(왜도 < 3, 첨도 < 8)가 적합하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는 정규분포의 기준치를 충족한다.

표 4. 기술통계 결과

item	M	SD	skewness	kurtosis	item	M	SD	skewness	kurtosis
훈련지시1	4.08	.69	-.31	-.19	시간관리1	3.49	.76	.08	-.05
훈련지시2	4.13	.73	-.67	.51	시간관리2	3.29	.90	-.14	-.25
훈련지시3	4.13	.72	-.49	-.01	시간관리3	3.38	.84	-.10	-.16
민주1	3.93	.76	-.43	.25	대인사회1	3.60	.80	-.21	-.36
민주2	3.77	.86	-.45	.18	대인사회2	3.77	.76	-.19	-.29
민주3	3.87	.80	-.45	.15	대인사회3	3.87	.71	-.05	-.50
권위1	2.58	1.00	.50	-.33	리더1	3.62	.78	.08	-.25
권위2	2.17	.96	.90	.63	리더2	3.66	.71	-.26	.28
권위3	2.07	.99	.76	-.02	리더3	3.58	.73	.06	.00
사회적지지1	3.80	.76	-.32	.17	만남인사1	3.19	.95	-.06	-.45
사회적지지2	3.73	.80	-.24	.07	만남인사2	3.09	.98	.03	-.62
사회적지지3	3.96	.76	-.29	-.37	만남인사3	3.08	.96	-.04	-.17
긍정피드백1	3.91	.78	-.35	.03	감정조절1	3.25	.85	-.12	.03
긍정피드백2	3.68	.82	-.26	.21	감정조절2	3.64	.77	-.29	.29
긍정피드백3	4.03	.68	-.25	-.20	감정조절3	3.56	.79	-.50	.63
팀워크1	4.00	.64	-.25	.31	친구갈등1	3.84	.68	-.55	1.10
팀워크2	3.43	.88	-.22	-.20	친구갈등2	3.99	.62	-.17	.20
팀워크3	3.68	.79	-.49	.63	친구갈등3	3.88	.69	-.12	-.25
목표설정1	3.93	.75	-.42	.07	도움1	3.88	.77	-.27	-.32
목표설정2	3.77	.70	-.28	.43	도움2	3.94	.72	-.44	.24
목표설정3	3.82	.76	-.30	-.14	도움3	4.07	.76	-.57	.43

2. 상관관계

코칭행동, 스포츠 라이프스킬, 그리고 라이프스킬 전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Pearson's r)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 보듯이, 세 변수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스포츠 라이프스킬의 대인관계 및 사회기술 요인과 라이프스킬 전이의 친구갈등해결 요인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계수($r=.52, p<.01$)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스포츠 라이프스킬의 리더십과 라이프스킬 전이의 만나기와 인사하기($r=.47, p<.01$), 친구갈등해결($r=.47, p<.01$) 요인 순이었다. 한편, 코칭행동의 훈련지시 행동·민주적 행동·사회적지지 행동·긍정적 보상 행동은 스포츠 라이프스킬이나 라이프스킬 전이의 하위요인들과 정적인 상관을 지니고 있었으나 권위주의적 행동은 모든 하위요인과 부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상관관계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훈련지시														
2. 민주	.60**													
3. 권위	-.23**	-.31**												
4. 사회적지지	.47**	.58**	-.32**											
5. 피드백	.40**	.49**	-.21**	.65**										
6. 팀워크	.38**	.35**	-.15*	.41**	.40**									
7. 목표설정	.45**	.36**	-.17**	.37**	.28**	.34**								
8. 시간관리	.23**	.34**	-.02	.28**	.21**	.27**	.35**							
9. 대인사회	.34**	.29**	-.14*	.28**	.25**	.35**	.39**	.39**						
10. 리더	.39**	.32**	-.16**	.42**	.33**	.43**	.46**	.39**	.59**					
11. 만남인사	.21**	.27**	.02	.25**	.20**	.31**	.25**	.36**	.40**	.47**				
12. 감정조절	.26**	.29**	-.14*	.34**	.26**	.31**	.27**	.42**	.36**	.40**	.47**			
13. 친구갈등	.41**	.29**	-.25**	.27**	.30**	.36**	.36**	.33**	.52**	.47**	.38**	.46**		
14. 도움	.32**	.25**	-.20**	.29**	.28**	.38**	.36**	.30**	.47**	.42**	.21**	.24**	.59**	

* $p<.05$, ** $p<.01$

3. 구조모형 검증

1) 모형적합도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아래 <표 6>에 제시하였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Q 값은 3.082, CFI는 .888, TLI는 .862, 그리고 RMSEA는 .087로 확인되었다. 이 값들은 ‘아주 좋은 적합도’ 기준에 약간 미치지 못했으나 ‘수용할만한 적합도’로 해석할 수 있다(홍세희, 2017; Kline, 2015). 그리고 SRMR 값은 .060으로 나타나 기준치인 .08 이하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결과를 해석하기에 괜찮은 수준으로 판단한다.

표 6. 연구모형의 적합도

Model	χ^2	df	$\chi^2/df(Q)$	CFI	TLI	RMSEA	SRMR
연구모형	228.036 ($p < .000$)	74	3.082	.888	.862	.087 (90% CI = .074, .100)	.060

2) 경로계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살펴본 경로계수는 <표 7>과 같다.

첫째, 지도자의 코칭행동은 스포츠 라이프스킬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beta = .680$, $p < .001$). 따라서 연구가설 h1은 채택되었다. 둘째, 스포츠 라이프스킬은 라이프스킬 전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948$, $p < .001$). 따라서 연구가설 h2는 채택되었다. 셋째, 지도자의 코칭행동은 라이프스킬 전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연구가설 h3은 기각되었다.

표 7. 경로계수 결과

가설	종속	독립	B	β	S.E.	t	검증
h1	life skills	← coaching	.559	.680	.081	6.908***	채택
h2	transfer	← life skills	1.359	.948	.221	6.153***	채택
h3	transfer	← coaching	-.067	-.057	.109	-.611	기각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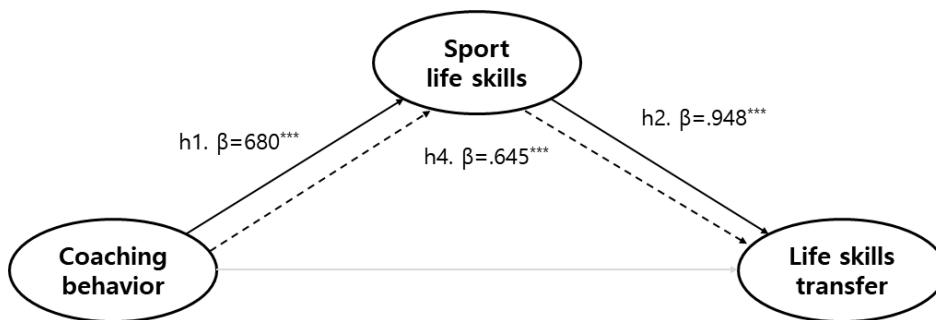
3) 매개효과 검증

선수들이 지각한 코칭행동과 전이의 관계에서 스포츠 라이프스킬의 매개(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표 8>). Bootstrapping의 복원추출 횟수는 500번으로 설정하였고 이때 통계적인 유의성은 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s의 95% 신뢰구간

에서 Two-tailed Significance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이때 신뢰구간 안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영가설을 기각하고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김응준, 이남주, 2013).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lower bounds는 .458이었고 upper bounds는 .907이었다. 즉 구간 안에 0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선수들이 지각한 코칭행동은 라이프스킬을 매개하여 전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45$, $p < .001$). 즉 연구가설 h4는 채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모형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표 8. Bootstrapping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경로	β	bootstrap confidence (BC) 95% CI		가설
			lower bounds	upper bounds	
h4	coaching → sport life skills → life skills transfer	.645***	.458	.907	채택

*** $p < .001$ *** $p < .001$

실선은 직접효과(h1, h2)이며 점선은 매개효과(h4)임.

그림 1. 연구모형

IV. 논 의

이 연구는 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하는 코칭행동과 스포츠 라이프스킬 그리고 라이프스킬의 전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자의 코칭행동은 스포츠 라이프스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즉 지도자가 어떤 유형으로 선수들을 지도하고 대하는지에 따라서 선수들의 목표설정, 팀워크, 시간관리 등과 같은 인지·행동·정서적 기술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 선수들의 라이프스킬 학습과 발달에 지도자의 능력·태도·역량 등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해 온 연구들(배준수, 임태희, 장창용, 2019; Camiré et al., 2012)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게다가 코칭행동이 선수들의 인성이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임태희, 이창민, 배준수, 양윤경, 2019), 코치의 자율성 지지 행동이 선수들의 라이프스킬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Cronin & Allen, 2018)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선수들은 지도자의 생각과 행동을 모델링(modeling)하여 자신의 라이프스킬에 반영한다는 Gould와 Carson(2008)의 주장도 〈가설 1〉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스포츠 라이프스킬 연구자들은 오래전부터 스포츠 라이프스킬 학습과 발달에 대한 지도자의 영향력에 관심을 가져왔다. 라이프스킬은 저절로 습득(be caught)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기반으로 가르쳐져야(be taught) 한다는 개념적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다(Gould & Carson, 2008). 이에 Camiré et al. (2012)은 라이프스킬을 가르치기 위한 지도철학과 체계적인 전략을 탐색한 바 있다. 그들에 따르면, 라이프스킬 코칭을 위해서는 라이프스킬 정보 전달을 위한 핵심단어(keywords), 동료 간의 평가(peer evaluation), 기술을 시범 보일 수 있는 기회의 제공, 모델링, 라이프스킬을 지도할 수 있는 순간의 이점을 취하는 것, 그리고 봉사정신 등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도자는 선수들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해 자신의 지도행동을 포함한 지도철학, 신념 등을 반성적인 태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라이프스킬 코칭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포츠 라이프스킬은 라이프스킬 전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즉 스포츠에서 학습·발달한 라이프스킬이 스포츠가 아닌 환경 즉 일상생활이나 사회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라이프스킬의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라이프스킬 교육의 최종 목표는 반드시 라이프스킬의 일상화 및

습관화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배준수 등, 2019; Hodge et al., 2013; Pierce et al., 2017), 라이프스킬에 대한 지각 및 인지과정이 결국 라이프스킬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Jacobs & Wright, 2018) 등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수들이 스포츠 환경에서 라이프스킬을 학습하고 발달시키는 것은 스포츠가 아닌 환경에서 라이프스킬을 사용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최근 들어 연구자들은 라이프스킬 전이가 발생하는 맥락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 Pierce et al. (2017)이 제시한 라이프스킬 전이 모델에 따르면 라이프스킬 전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환경 간의 유사성, 라이프스킬의 사용 기회, 전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지, 전이에 대한 보상과 같은 환경적 특성이 갖춰져야 한다. 게다가 전이가 더 효과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본심리욕구의 만족, 자신감,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지각 등과 같은 개인 심리 차원도 매우 중요하다. Pierce et al. (2017)은 스포츠의 라이프스킬 전이 과정이 항상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Jacobs와 Wright(2018)는 라이프스킬 전이 모델과 다르게 인지평가적 관점에서 개인의 인지 과정에 더 많은 초점을 두었다. 그들은 라이프스킬 전이를 위해 스포츠 참가자들이 스포츠 기술과 라이프스킬을 인지하고 이해했을 때 인지적 결합(cognitive connection)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지적 결합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스포츠 참가자들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라이프스킬을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라이프스킬 전이에 관한 개념적 모델들은 스포츠 라이프스킬이 삶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환경적 차원으로 접근하거나 개인의 인지적 과정으로 접근하고 있다. 결국 라이프스킬의 전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선수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주요 타자(significant others)의 의도적인 노력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도자의 코칭행동은 라이프스킬 전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은 기각되었다. 반면 ‘지도자의 코칭행동은 스포츠 라이프스킬을 매개하여 라이프스킬 전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4〉가 채택됨으로써 코칭행동은 라이프스킬 전이에 직접효과는 없으나 간접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지도자의 코칭행동은 선수들의 라이프스킬 전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라이프스킬을 통해 라이프스킬의 전이에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칭행동이 라이프스킬 전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원인은 라이프스킬 전이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Pierce et al. (2017)이 제시한 라이프스킬 전이 모델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개인 학습자(선수)는 지도자의 코칭행동과 같은 학습 환경을 통해 라이프스킬을 내면화한다. 다음으로 환경 요인은 개인 학습자의 라이프스킬 전이를 가능하게 하거나 저해하는 조건이 되며, 결과적으로 개인 학습자는 스포츠 이외의 삶에서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전이를 경험하거나 성공을 저해하는 부정적 전이를 경험하게 된다. 즉 개인 학습자는 학습 환경을 통해 라이프스킬을 습득하는 과정을 거쳐 라이프스킬 전이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더해서 라이프스킬 전이는 스포츠가 아닌 다른 환경에서의 라이프스킬 활용을 의미하는데(Weiss, Bolter, & Kipp, 2014), 보편적으로 삶의 다른 영역들은 스포츠 지도자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스포츠 환경에서의 코칭행동이 라이프스킬의 전이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스포츠 환경에서 태권도 지도자의 코칭행동은 선수들의 라이프스킬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며 선수들이 스포츠 환경에서 학습한 라이프스킬은 결국 삶의 다른 영역에서 활용하기 위한 라이프스킬 전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코칭행동은 라이프스킬 전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라이프스킬을 통해 전이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태권도 라이프스킬 교육 모델(배준수 등, 2019)에서 제시한 이론적 구조와 개념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들에 따르면 태권도 환경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선수들의 라이프스킬 발달에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다.

끝으로 이 연구는 태권도 환경에서 태권도 지도자, 선수의 라이프스킬, 그리고 라이프스킬의 전이까지 포괄하여 접근하고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일반학습 분야에서 전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데 반해 태권도 및 스포츠 분야에서는 관련 연구가 미미하기 때문이다(Jacobs & Wright, 2018). 따라서 태권도 환경에서 지도자의 코칭행동은 선수들의 라이프스킬과 라이프스킬 전이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규명되었다. 이에 따라 스포츠심리학을 비롯한 관련 연구자들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라이프스킬 코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태권도 지도자의 코칭행동과 선수들의 라이프스킬, 그리고 라이프스킬 전이의 구조모형을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태권도 선수 276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상관관계 및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태권도 지도자의 코칭행동은 선수들의 라이프스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선수들의 라이프스킬은 라이프스킬 전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태권도 지도자의 코칭행동은 선수들의 라이프스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넷째, 태권도 지도자의 코칭행동은 선수들의 라이프스킬을 매개하여 라이프스킬 전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코칭행동, 라이프스킬, 라이프스킬 전이의 구조모형은 완전매개모형을 지닌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를 비롯한 현장 전문가들은 스포츠가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라이프스킬 코칭전략(strategies for coaching life skills)’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최근 스포츠 혁신의 일환으로 대두되고 있는 선수들의 이중경력(공부하는 학생운동선수)이나 미래 진로 또는 역량강화와 관련된 논의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지도자의 코칭행동과 선수의 라이프스킬 및 전이에 대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는 태권도 종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국내 스포츠 환경의 라이프스킬 도입을 보편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종목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논의에서 제시한 라이프스킬 코칭전략 중에서 어떤 전략들이 가장 효과적인지 양적 연구 수행을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이 연구는 지도자들의 코칭행동에 초점을 두고는 있지만 Camiré et al. (2012)이 제시한 것처럼 코칭행동 못지않게 코칭전략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을 기반으로 여러 코칭전략 중에서 어떤 전략이 라이프스킬 발달과 전이에 가장 효과적인지, 스포츠 지도 상황 중 언제, 어떤 전략을 사용할 때 더 효과적인지 등 더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는 코칭행동과 라이프스킬 및 라이프스킬 전이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나 선수들이 지각한 코칭행동이라는 제약이 따른다. 즉 선수가 지각한 코칭행동이기 때문에 실제 코치의 지도 행동이나 전략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지도자와 선수 각 집단을 연구 참여자로 설정하고 커플자료(dyadic data)를 이용한 다층모형분석(hierarchical linear model)이나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병현(1992). **스포츠집단의 경쟁가치 리더십 모형**.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김응준, 이남주(2013). Bootstrapping을 적용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15(3), 15-25.
- 대한체육회(2019). **전문체육 지원서비스, 등록현황 및 통계정보. 종별현황**. 2020년 1월 21일 접속, <https://g1.sports.or.kr/stat/stat01.do>
- 박중길, 김기형(2013). 지각된 코칭행동, 자율적-통제적 행동조절 및 정서의 인과구조: 자기결정성 이론 관점.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52(5), 263-277.
- 배준수, 임태희, 장창용(2019). 태권도 라이프스킬 교육 모델 탐색.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30(1), 81-91.
- 송용관, 김동환(2006). 체육학 분야의 코칭행동 관련 연구동향: 1990년~ 2005년 국내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코칭능력개발지**, 8(4), 3-14.
- 임태희(2019). PEAK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학생운동선수의 라이프스킬과 학습태도 변화.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30(2), 15-28.
- 임태희, 권오정, 양윤경, 윤미선, 배준수(2019). 한국판 스포츠 라이프스킬 검사지 (KLSSS) 타당화. **체육과학연구**, 30(1), 20-33.
- 임태희, 배준수, 장창용(2018). 한국형 라이프스킬 전이 검사지 (KLSTS) 타당화.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9(4), 1-12.
- 임태희, 양윤경, 이창민, 배준수(2019). 태권도 학생운동선수가 지각한 긍정적 코칭행동과 도덕적 이탈, 그리고 스포츠 인성의 구조모형 검증. **국기원 태권도연구**, 10(4), 65-85.
- 임태희, 양진영, 배준수, 윤미선(2019). 대학 태권도선수들의 라이프스킬과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워크시트 개발 및 적용. **체육과학연구**, 30(4), 700-719.
- 임태희, 이창민, 배준수, 양윤경(2019). 중학교 태권도 선수가 지각한 지도유형과 스포츠 도덕

- 행동의 구조적 관계. *국기원 태권도연구*, 30(4), 109-127.
- 임태희, 장창용(2017). 스포츠에서의 라이프스킬 프로그램 적용과 효과. *체육과학연구*, 28(3), 577-591.
- 한태환, 김기환, 심상신(2012). 고등학교 태권도 지도자의 리더십유형이 선수만족도 및 팀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교과교육학연구*, 16(1), 21-37.
- 홍세희(2017). *구조방정식 모형의 다양한 확장*. 서울: 박영사.
- Bandura, A. (1991). Social cognitive theory of self-regul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248-287.
- Barrow, J. (1977). The variables of leadership : A review and conceptual framework.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 231-251.
- Camiré, M. (2014). Youth development in North American high school sport: Review and recommendations. *Quest*, 66(4), 495-511.
- Camiré, M., Trudel, P., & Forneris, T. (2012). Coaching and transferring life skills: Philosophies and strategies used by model high school coaches. *The sport psychologist*, 26(2), 243-260.
- Chelladurai, P., & Saleh, S. D. (1978). Preferred leadership in sports. *Canadian Journal of Applied Sport Sciences*, 3, 85-92.
- Gronin, L. D., & Allen, J. (2018). Examining the relationships among the coaching climate, life skills development and well-being in s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Science & Coaching*, 13(6), 815-827.
- Danish, S. J. (2002). *SUPER (Sports United to Promote Education and Recreation) program leader manual*. Richmond, VA: Life Skills Center,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 Danish, S. J., Meyer, A., Mash, J., Howard, C., Curl, S., Brunelle, J., (1998). *Going for the goal: student activity book, 2nd ed.* Virginia: Department of Psychology,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 Fraser-Thomas, J. L., Côté, J., & Deakin, J. (2005). Youth sport programs: An avenue to foster positive youth development. *Physical Education & Sport Pedagogy*, 10(1), 19-40.
- Gagne, E. D., Yekovich, C., & Yekovich, F. (1993). *The cognitive psychology of school learning (2nd ed.)*. New York: HarperCollins.
- Gould, D., & Carson, S. (2008). Life skills development through spor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 58-78.
- Gould, D., Chung, Y., Smith, P., & White, J. (2006). Future directions in coaching life skills: Understanding high school coaches' views and needs. *Athletic Insight*, 8(3), 28-38.
- Hardcastle, S. J., Tye, M., Glassey, R., & Hagger, M. S. (2015). Exploring the perceived

- effectiveness of a life skills development program for high-performance athlete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6, 139-149.
- Hodge, K., Danish, S., & Martin, J. (2013). Developing a conceptual framework for life skills interven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1(8), 1125-1152.
- Jacobs, J. M., & Wright, P. M. (2018). Transfer of life skills in sport-based youth development programs: A conceptual framework bridging learning to application. *Quest*, 70(1), 81-99.
- Jones, M. I., & Lavalley, D. (2009). Exploring the life skills needs of British adolescent athlete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0(1), 159-167.
- Kendellen, K., & Camiré, M. (2019). Applying in life the skills learned in sport: A grounded theory.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40, 23-32.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 Pierce, S., Gould, D., & Camiré, M. (2017). Definition and model of life skills transfer.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0(1), 186-211.
- Weiss, M. R., Bolter, N. D., & Kipp, L. E. (2014). Assessing impact of physical activity-based youth development programs: Validation of the Life Skills Transfer Survey (LST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85(3), 263-278.
- WHO (1999). *Partners in life skills education*. Geneva, Switzerland: Author.

Verifying the Structural Model of Perceived Coaching Behavior, Life Skills, and Transfer to Life Among Taekwondo Athletes

Lim, Tae-Hee (Yongin University, Professor) · Bae, Jun-Su (Yongin University, Doctoral Course)
· Seo, So-Young (Yongin University, Master) ·
Yang, Yun-Kyung (Gangnam University, Doctoral Course)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coaching behavior, life skills and life skills transfer in a sport context. Participants were 276 (male=150, female=126, Mage=22.84) Taekwondo athletes belonging to university and business sports team. Data were analyzed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aching behavior had a positive effect on life skills. Second, life skills positively influenced life skills transfer. Third, coaching behavior had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life skills transfer. Forth, coaching behavior had a positive indirect effect on life skills transfer by mediating life skills. In conclusion, coaching behavior of coaches was a determinant to predict athletes' life skills and life skills transfer. Therefore, to promote athletes' life skills development and transfer in the sport context, systematic life skills coaching strategies including coach's behavior or philosophy must be provided.

Keywords: sport coach, competency, strategy for coaching life skills, mediation effect